

3. 뉴스클리핑

1. 국내외 반도체산업 주요 뉴스

▶ “올해 韓 수출 6,000억달러 돌파전망...반도체가 일등공신”

[원문보기](#)

올 한 해 한국은 6,000억달러가 넘는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1조달러대의 벽이 무너졌던 무역규모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기였던 2018년보다 순조로운 상반기 수출액을 기록하며 무역흑자 전망에 힘을 더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등에서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가 이 같은 흐름을 이끄는 것으로 분석됐다.

▶ 2022년 주요 R&D 예산, 23조5082억원 책정...올해보다 4.6% 늘어난다

[원문보기](#)

내년도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23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감염병 대응 및 디지털 뉴딜 투자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양자·6세대 이동통신(6G)·인공지능 등 전략 기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24일 개최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 흔들림 없는 K소부장... '연대와 협력'으로 기술 독립

[원문보기](#)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으리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정부는 일본의 기습 수출규제 한 달 만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놴다. 그로부터 만 1년 만에 '소부장 2.0 전략'을 수립했다. 그리고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산업 일본 의존도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신속, 과감한 정책 주도로 민관이 소부장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 'K-반도체' 성장기반 본격 조성...세제지원 대폭 강화·특별법 추진

[원문보기](#)

정부가 5월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반도체 성장기반 조성에 속도를 낸다. 올해 하반기부터 세제·금융지원, 제도개선, 민간투자 등에 성과를 내는 한편 반도체 등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준비한다. 1일 제12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5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 “CMP 슬러리” 시장 주도권 잡자”...韓 기업 특허출원 증가세

[원문보기](#)

국내 기업이 대표적 반도체 소재 기술인 연마제(CMP 슬러리)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글로벌 선도 기업이 특허분쟁 등 사유로 특허출원에 주춤한 사이, 국내기업 CMP 슬러리 국산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CMP 슬러리 관련 특허출원이 2009년 87건에서 2018년 131건으로 연평균 4.7%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 美 마이크론의 자신감...“업계 최초 4세대 D램·176단 낸드가 주력 될 것”

[원문보기](#)

마이크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올해 3~5월(3분기)에 매출 74억2,000만 달러(약 8조4,098억 원)와 영업이익 17억9,900만 달러(2조389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6%와 103%씩 증가한 규모다. 깜짝 실적의 배경엔 정보기술(IT) 기기 수요 급증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가격 급등에 있다.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은 마이크론의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의 매출도 끌어올렸다.